

배우자 선택시 여성의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이 초기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Personal and Parental Resources of Women
on the Early Marital Satisfaction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
강 사 장 은 영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 사 유 지 연*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Lecturer : Chang, Eun Yo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Lecturer : Yoo, Ji Ye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change resources when women choose their spouse,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ose resources. For this, women under marriage of less than five years were subjected,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age difference of the couple, and were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personal and parental resources when choosing their spouse on the early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sonal and parental resources for each age difference of the married couple didn't have a meaningful difference in general. Second, it is shown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f each age difference group that there is no particular meaningful difference. Finally,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in marital

* 연결저자 : 유지연 (yeon605@chol.com)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exchange resources, the personal resources ha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value field in case of having the same religion. In case both the husband and wife were the second child or younger,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mutual action field than there was when they were both first-born. In the emotional and the mutual action field of marital satisfaction, a meaningful difference was seen when the couple had the same kind of jobs than when wives had upper level jobs. Concerning the parental resources, a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in the mutual action field of the marital satisfaction when the parents of the both sides had the same level of scholastic attainment.

Key Words : 초기 결혼만족도(early marital satisfaction),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 부모관련 자원(parental resource)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의 양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결혼 시기, 동기, 규범 등 과거의 제도적이고 정형화된 결혼의 양상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선택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연상이어야 한다는 연령에 대한 규범은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 진출 증가, 경제력 향상,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이론적 모델의 이론화 시도와 실증적, 경험적 검증이 지속되고 있는데(Adams, 1979; Nye, 1978, 1980), 가족이론가들은 배우자 선택이론으로서 욕구이론, 정신역학이론, 교환이론, 발달과정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배우자 선택이론 가운데 교환이론은 배우자 선택이 남성, 여성이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결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현대 사회의 결혼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결혼을 선택할 때 서로가 가진 자원인 교육 수준, 경제력, 외모 등을 교환하며 자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각각 상이한 자원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자원의 양과 질이 상호평형을 유지할 때 동등한 결합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권력, 재산과 여성의 아름다움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자원이나 특성도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김명자, 1990; Oppenheimer, 1988; South, 1991). 특히 결혼시장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교환자원으로 작용했던 연령에 대한 규범이 변화되면서 그 동안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던 남성과 여성의 자원 교환의 양상이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젊음이 교환된다는지, 여성의 경제력과 남성의 성격이 교환되는 등 다양해질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결혼관(강호철, 1984; 김경숙, 1985; 홍준숙, 1987) 및 배우자 선정 조건이나 태도(김혜선·김영희, 1986; 백남희, 1987)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 배우자 선택 과정을 결혼 적응(김혜선, 1992), 결혼만족도(이경애, 1994), 이혼(김형선, 1997)과 연관시킨 연구, 여성학적 관점에서 결혼을 분석한 연구(채민정, 1996)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

관을 분석하고 결혼 이념들을 살펴보면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결혼생활과 관련되는 요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배우자 선택만을 살펴봄으로써 선택 과정이 결혼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혼은 상대방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이후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관해서 많은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성에 의해 지위가 결정되고 가부장적 가족 가치가 잔존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의 결혼은 인생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며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환되는 자원의 특성과 그 교환된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 5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환되는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고,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의 차이가 초기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환이론과 배우자 선택

교환이론은 가족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부상되었고, 특히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Atkinson & Glass, 1985; Centers, 1975; Jorgensen, 1977; Krain, Cannon, & Bagford, 1977; Lee, 1988; Rogler & Procidano, 1989). 배우자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교환은 남자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여성의 신체적 매력과 교환하려 한다는 것이다(Schoen & Wooldredge, 1989). 이와 같이 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지닌 자원보다

높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며, 대가나 보상이 같다면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나 가치관,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 한다(김혜선·성미애, 1993; Nye, 1980; South, 1991).

배우자 선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결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이 지닌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최대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며, 남녀가 각기 상이한 자원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원의 질과 양이 상호 평형을 유지할 때 동등한 결합으로 본다. 배우자 선택에서 교환이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유사하다는 개념과는 다르다. 이는 두 사람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특성이나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평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환이론은 유사한 유형의 보상을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보상을 교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교환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과 대가에 있어서는 주관적 평가, 즉 배우자의 자원에 대해 자신이 인지한 보상이나 대가가 더욱 중요하며(Cate, Lloyd, Henton, & Larson, 1982), 특히 객관적인 공평성과 균등성보다 개인이 절대적 보상 수준이 높다고 인지할 때 가장 만족스러워 한다(Cate, Lloyd, & Long, 1988; Murstein, Cerreto, & MacDonald, 1977; Surra, 1990).

2. 교환자원과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교환이론에서는 개개인이 그들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강조한다(Edwards, 1969). 교환자원은 교환 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금전과 같은 물질적 자원과 감정

적, 인지적 및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물질적 자원이 있다(Foa & Foa, 1974, 1980).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Roach, Frazier, & Bowden, 1981)으로 교환자원에 대한 보상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척도이다.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이혼율을 볼 때 결혼 전 배우자 선택에서의 교환자원은 이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연령과 관련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최규련, 1988; 한남제, 1985),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김혜선, 1992). 이동원(1988)에 의하면 부부의 연령 차이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반면에 연령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선주, 1988). 한편 종교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종교의 일치 정도가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김미숙·김명자, 1990; 이경애, 1994; 정기원·이상영, 1992). 또한 교환자원의 동질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애, 1994; 이동원, 1988).

3. 선행연구 고찰

개인적 자원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종교, 출생 순위, 학력, 직업, 수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본 사항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자신보

다 나이 많은 남성, 남성들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백남희, 1987). 부부의 연령 차이가 부부간의 권력, 지위,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Atkinson & Glass, 1985; Casterline, Lindy, & MacDonald, 1986; Mensch, 1986; Presser, 1975)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안할 때 부부의 연령 차이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배우자 선택에서 종교는 동질혼적인 성향을 보인다(이효재, 1993; 홍대식, 1996; Johnson, 1980; Kalmijn, 1998). 그러나 최근 들어 종교에 대한 동질혼 선호 경향은 사회 변화 속에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외 연구(Lee, 1988; South, 1991)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종교의 일치가 더 이상 중요하고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상 출생 순위는 배우자 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선택에서 배우자의 출생 순위는 상관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강은숙, 1982; 이경숙, 1980), 장남, 장녀, 외동아들, 외동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이선정, 2000; 홍준숙, 1987). 특히 여성들은 장남을 배우자로 기피하는데, 이는 장남이 다른 형제에 비해 우대되며 중히 여겨 지지만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모시고 형제들을 통솔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은 학력, 직업, 수입을 포함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회경제적 자원은 동질혼적 측면을 강조한다(박미혜, 1991; 이선정, 2000; Kalmijn, 1998; Macosky & Barbara, 1983).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나(김경신·김오남·윤상희, 1997; 송재희, 1989), 고등 학력을 가진 사람은 남녀 모두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배우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선정, 2000). 직업은 생활 능력과 경제력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백남희(198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 교직원을 가장 선호하였고, 여성들이 원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 기업경영자, 전문직, 기술직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녀 공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결혼은 결혼당사자의 상황뿐 아니라 양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결혼 후 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세대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환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녀 역시 부모의 의사를 따르는 의존적 성향을 가진다(김혜선·신양재, 1988; 안해옥, 1988; 이효재, 1993; 정현아, 1985). 또한 양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결혼의 안정성이 높다(김미숙·김명자, 1990). 이경애(1994)의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 부부의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질혼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영향들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든가, 배우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생활에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교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결혼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혼 당사자들은 자신과 배우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환되는 자원의 특성과 그 교환된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교환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환된 자원과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연령 차이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결혼 5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의 연령 차이가 아내가 연상, 부부 동갑, 아내가 연하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수행하였다. 즉 아내가 남편보다 1살 이상 많은 집단을 아내 연상 집단으로, 아내와 남편이 동갑인 집단을 부부 동갑 집단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1살 이상 적은 집단을 아내 연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의 연령 차이에 따라 결혼 당시 교환된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부부의 연령 차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3.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의 기혼 여성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평가한 교환자원을 파악하고자 회상적 기법을 이용하였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정확한 교환 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결혼 초기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져 연구대상의 결혼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였다. 교환이론의 측면에서 교

환자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선택에 참여한 남녀 두 사람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성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 것은 성 간의 교환이 아니라 여성이 결혼을 이루어 가는 주체로서 어떻게 배우자 선택에서 자원을 교환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연구의 대상자가 작성할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3년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표본으로 정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입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요인 구조를 검증하여 요인의 설명력을 감소시키거나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제거하였고, 표현이 어색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들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을 결혼 5년 이내의 기혼 여성이면서 부부의 연령 차이를 고려하여야 했으므로 무작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의 표집, 눈덩이 표집과 우편 질문지법,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었고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7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 보고식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에 관한 설문지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결혼 전 종교, 출생 순위와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는 물론 양가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력, 직업, 수입을 조사하였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거나 낮은 남성과 결혼한 집단은 이 결혼을 한 것으로, 동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위치한 사람과의 결혼은 동질혼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정현숙(2001)이 사용한 72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에서 요인공통성이 .5 이하인 문항들을 제외한 후 본 조사의 문항을 총 6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요인 1은 애정과 신뢰, 존중감과 시간 공유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정서적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은 개인적 역할, 아버지 역할, 가사분담, 경제적 역할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역할 요인으로, 종교와 목표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4는 가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 범위는 Cronbach's α 값이 .870~.940으로 높은 편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인지하는 것이며, 이는 남편과의 정서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남성의 가정내 역할 수행 정도가 높고 가치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혼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등을 산출하였고, 연령 차별 자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이를 요약해 보면, 26세에서 35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주거 형태는 전세나 월세의 형태, 자녀수는 1명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형태를 보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출생 순위는 차녀 이하가 많았다.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종합해 보면 학력은 대다수가 대졸이었으며, 직업 유형은 사무관리직이나 전문직이 많았고, 결혼 전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결혼관련 특성으로 배우자 선택 유형, 교제 기간, 결혼의 주 결정권자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를 종합해 보면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 분	N	%	변인	구 분	N	%
연령	25세 이하	8	2.9	출생 순위	장녀	108	39.4
	26세-30세	119	43.4		차녀 이하	166	60.6
	31세-35세	116	42.2	학력	고졸 이하	69	25.5
	36세 이상	32	11.7		대학교 졸	167	61.6
주거 형태	자가	111	40.1	대학원이상 졸	35	12.9	
	전세 및 월세	155	56.5	생산, 기술직	13	4.9	
	임대	8	2.8	사무관리직	82	30.7	
자녀 수	없음	95	35.5	직업	전문직	70	26.2
	1명	103	38.4		영업, 서비스직	26	9.7
	2명	66	24.6		자영업	6	2.3
	3명	4	1.5		직업 없음	62	23.2
가족 형태	부부	106	38.5		기타	12	4.5
	부부+자녀	144	52.4		수입	100만원 미만	70
	시(친정)부모+부부	10	3.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6	27.5
시(친정)부모+부부+자녀	15	5.5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1		25.4	
종교	불교	29	10.6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4	10.0
	기독교	111	40.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	4.2
	천주교	37	13.6	300만원 이상		9	3.8
	종교 없음	97	35.0	전 체	275	100.0	

* 문항별 무응답을 missing value로 처리하여 사례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 조사대상자의 결혼관련 특성

변 인	구 분	N	%
배우자 선택 유형	중매혼	17	6.2
	절충혼	36	12.4
	연애혼	214	78.5
	자유혼	8	2.9
교제 기간	6개월 이하	51	18.5
	7개월 이상-12개월 이하	49	17.8
	13개월 이상-24개월 이하	58	21.1
	25개월 이상-36개월 이하	30	10.8
	37개월 이상	83	30.1
	무응답	5	1.7
결혼의 주 결정권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적극적	142	51.5
	양가 집안에서 적극적	23	8.3
	부부 두 사람 모두 적극적	105	38.0
	무응답	6	2.2
전 체		275	100.0

배우자 선택 유형은 연애혼이 가장 많았고, 교제 기간은 37개월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혼을 결정할 때 더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적극적인 경우와 부부 두 사람 모두 적극적인 경우가 많아 결혼에서 당사자들의 결정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부부 연령차별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

부부 연령차별 개인적 자원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부 연령차별 종교의 교환은 차이가 없었다. 즉 아내 연상 집단, 부부 동갑 집단, 아내 연하 집단 모두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사회에서 종교는 동질혼의 측면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Glenn, 1984; Lee, 1988; Mathes, 1975; Surra, 1990)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동질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연령차별 출생 순

위의 결합 차이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부 연령차별 사회경제적 자원의 교환 정도는 집단별로 크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동일 학력, 남편 직종 우위, 남편 수입 우위라는 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력 강화로 인하여 여성이 결혼을 결정할 때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덜 고려한다는 이경애(1994), Schoen과 Wooldredge(1989) 등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부부 연령차별 교환자원으로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공평한 결합보다는 남편이 더 높은 쪽으로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혼에서 중요한 교환자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연령과 남성의 경제력이 교환된다고 하는 교환이론의 가정에서 볼 때 아내 연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이나 수입 면에서 아내가

<표 3> 부부 연령차별 개인적 자원의 차이

변인		집 단	아내 연상		부부 동갑		아내 연하		χ^2
			N	%	N	%	N	%	
종 교	동일 종교		60	73.2	69	75.0	72	72.7	9.201
	다른 종교		17	20.7	22	23.9	27	27.3	
	무교		5	6.1	1	1.1	-	-	
출생 순위	남편 장남 +아내 장녀		7	8.5	18	19.6	14	14.0	5.550
	남편 차남 이하 +아내 장녀		21	25.6	26	28.3	29	29.0	
	남편 차남 이하 +아내 차녀 이하		23	28.0	19	20.7	22	22.0	
	남편 장남 +아내 차녀 이하		31	37.8	29	31.5	35	35.0	
학 력	동일 학력		56	68.3	54	60.0	62	62.6	6.719
	남편 학력 우위		14	17.1	27	30.0	30	30.3	
	아내 학력 우위		12	14.6	9	10.0	7	7.1	
직업	동일 직종		30	36.6	22	24.4	38	38.0	5.253
	남편 직종 우위		31	37.8	45	50.0	41	41.0	
	아내 직종 우위		21	25.6	23	25.6	21	21.0	
수입	동일 수입		31	38.3	21	23.1	28	28.6	7.912
	남편 수입 우위		40	49.4	63	69.2	63	64.3	
	아내 수입 우위		10	12.3	7	7.7	7	7.1	

더 우위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 집단 모두 남편이 더 높은 측면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녀의 연령차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부 연령차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우선 양가 부모의 학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부부의 연령 차이에 따른 세 집단 모두 동일한 학력으로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 연령차별로 부모 학력 수준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부부 동갑 집단과 아내 연하 집단에서 친정의 학력이 시댁의 학력보다 약간 높은 측면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집단별 양가 부모의 직업별 경향성을 살펴보면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내 연상 집단과 부부 동갑 집단에서는 동일 직종이 각각 42.0%, 32.6%, 친정 직종 우위가 각각 28.4%, 32.6%로 나타났다. 아내 연하 집단은 시댁 직종 우위 40.7%, 동일 직종 30.8%, 친정 직종 우위 26.4%의 순서로 나타나 다른 두 집단과 다른 양상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 연령차별 부모의 수입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 연령차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내 연상 집단과 부부 동갑 집단에서는 양가 부모의 동일 수입이 각각 45.3%, 38.3%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아내 연하 집단에서는 친정 수입 우위가 41.3%였다. 이와 같이

<표 4> 부부 연령차별 부모관련 자원의 차이

변인	집단	아내 연상		부부 동갑		아내 연하		χ^2
		N	%	N	%	N	%	
학력	동일 학력	38	48.7	55	61.1	42	44.7	5.446
	시댁 학력 우위	20	25.6	16	17.8	25	26.6	
	친정 학력 우위	20	25.6	19	21.1	27	28.7	
직업	동일 직종	34	42.0	28	32.6	28	30.8	9.138
	시댁 직종 우위	19	23.5	24	27.9	37	40.7	
	친정 직종 우위	23	28.4	28	32.6	24	26.4	
	양가 무직	5	6.2	6	7.0	2	2.2	
수입	동일 수입	34	45.3	31	38.3	21	26.3	6.332
	시댁 수입 우위	19	25.3	23	28.4	26	32.5	
	친정 수입 우위	22	29.3	27	33.3	33	41.3	

부부 연령차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동질혼적인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경애(1994)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여전히 교환자원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보여진다.

3. 부부 연령차별 결혼만족도

부부 연령차별 결혼만족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부 연령차별 결혼만족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 집단 모두 결혼생활의 4가지 영역에서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결혼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4가지 영역 중에서 정서적 영역(M=3.99), 상호작용 영역(M=3.95), 역할 영역(M=3.71)은 아내 연하 집단

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가치 영역에서는 아내 연상 집단이 오히려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M=3.71)을 보였다. 이는 아내 연상 집단이 종교나 가치관, 생의 목표 일치 등이 기대에 맞아 결혼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역할 영역에서 아내 연상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 연상 집단이 연하의 남편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

개인적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표 5> 부부 연령차별 결혼만족도의 하위 영역별 차이

변인	집단	아내 연상		부부 동갑		아내 연하		F
		M	SD	M	SD	M	SD	
정서적		3.86	.83	3.89	.69	3.99	.61	.895
상호작용		3.88	.80	3.90	.71	3.95	.65	.275
역할		3.56	.80	3.60	.68	3.71	.67	1.151
가치		3.71	.67	3.26	.96	3.28	.93	.098

에서와 같이 종교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가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3.572$, $p<.001$). 결혼 전 부부의 종교가 동일한 종교였을 경우 서로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보다 결혼만족도의 가치 영역이 높았다. 결혼만족도의 가치 영역은 개인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혼 전 종교가 같은 경우 서로의 가치관이나 응집성, 생의 목표 등이 일치하여 결혼에서의 만족감을 높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의 출생 순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상호작용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2.906$, $p<.05$). 남편 차남 이하

와 아내 차녀 이하의 결혼이 평균 4.05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차남과 차녀의 결혼이 상호작용 영역 이외에 정서적 영역($M=3.99$), 역할 영역($M=3.73$), 가치 영역($M=3.32$)에서도 비교적 다른 출생 순위별 결합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장남보다는 차남과의 결혼에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 전 학력과 수입의 차이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은 결혼만족도의 정서적 영역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

<표 6> 개인적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I)

변 인		집 단	M	SD	t/F
종교	정서적	같은 종교	3.94	.68	.981
		다른 종교	3.84	.81	
	상호 작용	같은 종교	3.91	.71	-.339
		다른 종교	3.95	.71	
	역할	같은 종교	3.64	.68	.277
		다른 종교	3.61	.78	
가치	같은 종교	3.43	1.00	3.572***	
	다른 종교	2.95	.75		
출생 순위	정서적	남편 장남+아내 장녀	3.79	.66	.796
		남편 차남 이하+아내 장녀	3.89	.71	
		남편 차남 이하+아내 차녀 이하	3.99	.73	
		남편 장남+아내 차녀 이하	3.91	.70	
	상호 작용	남편 장남+아내 장녀 (A)	3.65	.73	2.906* AC
		남편 차남 이하+아내 장녀 (B)	3.89	.73	
		남편 차남 이하+아내 차녀 이하 (C)	4.05	.69	
		남편 장남+아내 차녀 이하 (D)	3.90	.75	
	역할	남편 장남+아내 장녀	3.52	.72	1.041
		남편 차남 이하+아내 장녀	3.60	.61	
		남편 차남 이하+아내 차녀 이하	3.73	.80	
		남편 장남+아내 차녀 이하	3.58	.70	
	가치	남편 장남+아내 장녀	3.26	.89	.045
		남편 차남 이하+아내 장녀	3.28	.90	
		남편 차남 이하+아내 차녀 이하	3.32	1.01	
		남편 장남+아내 차녀 이하	3.32	1.03	

* $p<.05$ ** $p<.01$ *** $p<.001$

이가 나타났다. 즉 결혼 전 부부가 동일한 직종이었을 경우가 남편의 직종이 높을 경우, 아내의 직종이 높을 경우보다 정서적 영역(F=2.443, p<.05)과 상호작용 영역(F=2.673, p<.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공평한 자원 교환이 결혼에서의 만족감을 높게 인지하

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 전 학력, 직업, 수입의 차이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보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적 자원의 차이는 결혼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인적 자원의 선택이 약화되었거나 혹은 현대 결

<표 7> 개인적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II)

변인		집단	M	SD	t/F
학력	정서적	동일 학력	3.96	.70	.828
		다른 학력	3.89	.69	
	상호작용	동일 학력	3.93	.69	.243
		다른 학력	3.91	.71	
	역할	동일 학력	3.60	.74	.108
		다른 학력	3.70	.66	
	가치	동일 학력	3.29	.94	-.220
		다른 학력	3.31	1.02	
직업	정서적	동일 직종 (A)	4.03	.70	2.443* AC
		남편 우위 직종 (B)	3.91	.74	
		아내 우위 직종 (C)	3.78	.65	
	상호작용	동일 직종 (A)	4.03	.70	2.673* AC
		남편 우위 직종 (B)	3.90	.74	
		아내 우위 직종 (C)	3.77	.65	
	역할	동일 직종	3.67	.72	1.860
		남편 우위 직종	3.69	.73	
		아내 우위 직종	3.48	.68	
	가치	동일 직종	3.43	.97	1.648
		남편 우위 직종	3.25	.99	
		아내 우위 직종	3.15	.94	
수입	정서적	동일 수입	3.99	.71	1.288
		다른 수입	3.86	.70	
	상호작용	동일 수입	3.97	.72	1.064
		다른 수입	3.87	.69	
	역할	동일 수입	3.68	.67	.594
		다른 수입	3.62	.71	
	가치	동일 수입	3.30	.97	.208
		다른 수입	3.27	.93	

* p<.05 ** p<.01 *** p<.001

혼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결혼 전 양가 부모의 학력이 달랐을 때 결혼만족도는 양가 부모의 학력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8> 부모관련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변인		집단	M	SD	t/F
부모 학력	정서적	동일 학력	3.83	.67	-1.448
		서로 다른 학력	3.99	.77	
	상호작용	동일 학력	3.81	.70	-2.391*
		서로 다른 학력	4.06	.69	
	역할	동일 학력	3.60	.70	-.486
		서로 다른 학력	3.65	.84	
가치	동일 학력	3.31	.86	-.442	
	서로 다른 학력	3.38	1.19		
부모 직업	정서적	동일 직종	3.81	.74	1.447
		남편 우위 직종	3.99	.73	
		아내 우위 직종	3.95	.66	
		양가 모두 무직	4.16	.61	
	상호작용	동일 직종	3.85	.71	1.126
		남편 우위 직종	4.04	.66	
		아내 우위 직종	3.86	.75	
		양가 모두 무직	3.92	.81	
	역할	동일 직종	3.60	.74	1.987
		남편 우위 직종	3.52	.73	
		아내 우위 직종	3.71	.71	
		양가 모두 무직	3.99	.59	
	가치	동일 직종	3.29	.95	.099
		남편 우위 직종	3.28	1.07	
		아내 우위 직종	3.35	.93	
		양가 모두 무직	3.37	1.02	
부모 수입	정서적	동일 수입	3.95	.73	.325
		시댁 수입 우위	3.95	.70	
		친정 수입 우위	3.93	.72	
	상호작용	동일 수입	3.86	.71	1.313
		시댁 수입 우위	4.04	.71	
		친정 수입 우위	3.90	.76	
	역할	동일 수입	3.54	.71	1.437
		시댁 수입 우위	3.61	.78	
		친정 수입 우위	3.73	.69	
	가치	동일 수입	3.20	.98	1.166
		시댁 수입 우위	3.42	.96	
		친정 수입 우위	3.37	.94	

* p<.05 ** p<.01 *** p<.001

족도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t=-2.391, p<.05$). 그 밖에 양가 부모의 직업과 수입은 결혼만족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친정이 시대보다 학력의 차이가 높을 때를 제외하고 부모의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자원은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질혼 집단은 이질혼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은 결혼의 목표나 역할기대, 가치관 등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결혼생활의 중요한 면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잘 이루어져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현대 사회에서 결혼의 양상들은 변화되고 있다. 결혼 시기, 동기, 규범 등 과거의 제도적이고 정형화된 결혼의 양상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선택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양화는 결혼에서 연령 차이에 대한 전통적 규범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연상이어야 한다는 통념은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 진출 증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환되는 자원의 특성과 결혼만족도를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결혼 당사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환자원의 유형에 대하여 부부 연령차별 차이를 살펴보고, 교환자원의 차이가 결혼 후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환된 자원과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연령차이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결혼 5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의 연령 차이

가 아내가 연상, 부부 동갑, 아내가 연하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연령차별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부 모두 결혼 전에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출생 순위별 결합은 남편 장남과 아내 차녀 이하의 결혼이 높았다.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면 학력은 부부 동일 학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직업이나 수입 면에서는 남성 우위적인 성향이 높았다. 한편 세 집단 모두 양가 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은 동일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환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서적 영역, 상호작용 영역, 역할 영역 모두 아내 연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아내 연상 집단은 역할 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교환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자원은 동일한 종교일수록 가치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둘째 이하와의 결혼이 남편 장남과 아내 장녀와의 결혼보다 상호작용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한 직종인 경우가 아내의 직종이 높은 경우보다 결혼만족도의 정서적 영역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모관련 자원은 양가 부모의 학력이 동일했을 때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부부 연령차별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의 차이는 교환자원으로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간 연령 차이는 자원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연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에서 부부의 연령 차이는 이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개인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배우자 선택에서 교환되는 개인적 자원과 부모관련 자원은 동질적이거나 남성 우위적 경향을 보였다. 결혼 당사자의 교환된 자원에서 종교, 학력은 동질혼적 특성을 보인 반면, 수입과 직업에서는 남성 우위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연령적으로 전통적 규범을 벗어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 면에서 내혼적 성향과 남성 우위의 선호 경향이 여전히 잔존함을 볼 때 전통적 측면과 현대적 변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 당사자들 스스로 본인의 결혼이 바람직한 결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 건강한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환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깨지고 있다. 현대 결혼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수입, 직업에서 친정 우위의 비율이 시댁 우위의 비율보다 높은 것은 가부장적 결혼의 경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으로 한정하여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성과 여성의 자원 교환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고, 같은 자원 교환을 경험한 것으로 가정되는 남녀가 자원의 교환

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결혼만족도를 갖는지도 밝혀내지 못하였다. 자원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부의 상호작용 요소도 분명히 개입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를 함께 연구하여 보다 정교하게 자원 교환의 의미와 그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연령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없었다. 아내가 연상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조사대상자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사방법과 심층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보다 정교하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숙(1982).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진주지방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숙(1985). 부모가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논문집 제13집, 39-57.
- 4)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 미혼 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 5) 김명자(1990).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8(3), 147-160.
- 6) 김미숙·김명자(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7) 김형선(1997). 배우자 선택 과정과 결혼의 질

- 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혜선(1992). 배우자 선택 과정과 결혼적응도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김혜선·김영희(1986). 한국·미국·일본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5집, 441-470.
 - 10) 김혜선·성미애(1993). 배우자 선택 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2), 69-80.
 - 11) 김혜선·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8집, 67-112.
 - 12) 박미해(1991). 한국의 교육 계층으로 본 배우자 선택. 가족학논집 제3집, 21-29.
 - 13) 백남희(1987). 결혼 적령기 남녀의 배우자 선정 조건-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송재희(1989).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대전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안해옥(1988). 미혼 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광주직할시 의학계 미혼 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경숙(1980). 미혼 근로자와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경애(1994). 도시 부부의 배우자 선택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동원(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이선정(2000). 기혼 여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선주(1988). 기혼 여성의 결혼관과 그에 관련된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효재(1993).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 22) 정기원·이상영(1992).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논집 12(1), 92-107.
 - 23)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24) 정현아(1985).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채민정(1996). 여성의 결혼 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결혼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최규련(1988).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한남제(1985). 가족 가치관의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3), 137-170.
 - 28) 홍대식(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 스타일과 이성 상대 선택 준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0(2), 81-110.
 - 29) 홍준숙(1987).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Adams, B. N.(1979). Mate s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 A theoretical summarization. Contemporary Famili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 259-267.
 - 31) Atkinson, M. P. & Glass, B. L.(1985). Marital age heterogamy and homogamy, 1900 to 198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3), 685-691.
 - 32) Casterline, J. B., Lindy W. L., & MacDonald, P.(1986). The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 Var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40, 353-374.

- 33) Cate, R. M., Lloyd, S. A., & Long, E.(1988). The role of rewards and fairness in developing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2), 443-452.
- 34) Cate, R. M., Lloyd, S. A., Henton, J., & Larson, J.(1982). Fairness and reward level as prediction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5, 177-181.
- 35) Centers, R.(1975). Attitude similarity : Dissimilarity as a correlate of heterosexual attraction and lo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2), 305-312.
- 36) Edwards, J.(1969). Familial behavior as soci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3), 518-526.
- 37) Foa, E. B. & Foa, U. G.(1980). Resource theory : Interpersonal behavior as exchange. In K. J. Gergen, M. S. Greenberg, & R. H. Willis (Eds.). *Social exchange :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77-94). New York : Plenum Pub Corp.
- 38) Foa, U. G. & Foa, E. B.(1974). *Societal structures of the mind*. Springfield, IL : Thomas.
- 39) Glenn, N. D.(1984). A note on estimating the strength of influences for religious endogam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3), 725-727.
- 40) Johnson, R. A.(1980). *Religious assortative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 Academic Press.
- 41) Jorgensen, S. R.(1977). Social class heterogamy, status striving, and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 A partial replication and revision of Pearlin's contingency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653-661.
- 42) Kalmijn, M.(1998). Intermarriage and homogamy : Causes, patterns,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395-421.
- 43) Krain, M., Cannon, D., & Bagford, J(1977). Rating-dating or simply prestige homogamy? Data on dating in the Greek system on a midwestern camp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663-674.
- 44) Lee, S. M.(1988). Intermarriage and ethnic relations in Singapo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255-265.
- 45) Macosky, V. P. & Barbara, K. S.(1983). *The mating gradient : Alive and well on the college campus*. Psychological Association.
- 46) Mathes, E. W.(1975).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nxiety on heterosexual attraction over a series of five encoun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4), 769-773.
- 47) Mensch, B.(1986).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 in first marriage. *Social Biology* 33, 229-240.
- 48) Murstein, B. I., Cerreto, M., & MacDonald, M. G.(1977). A theory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exchange-orientation on marriage and friend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3), 543-548.
- 49) Nye, F. I.(1978). Is choice and exchange theory the ke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219-233.
- 50) Nye, F. I.(1980). Family mini theories as special instances of choice and exchange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479-489.
- 51) Oppenheimer, V. K.(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563-591.
- 52) Presser, H.(1975).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 : Trends, patterns, and social implication.

- American Behavior Scientist 19, 190-205.
- 53)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537-546.
- 54) Rogler, L. H. & Procidano, M. E.(1989). Marital heterogamy and marital quality in Puerto 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363-372.
- 55) Schoen R. & Wooldredge, J.(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9-71 and 1979-8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65-481.
- 56) South, S. J.(1991). Sociodemographic differential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928-940.
- 57) Surra, C. A.(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44-865.